



제목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일	2000. 4. 15.
저자	노세영, 박종수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431
ISBN 또는 ISSN	978-8951103780

내용 요약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와 지역을 가리키는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서양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거의 학문적 용어로 고정된 '고대 근동(Ancient Near East)'이라는 명칭은 실은 한국의 위치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에 있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으며,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저자가 '중동' 또는 '중근동'대신에 '고대 근동'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학문적으로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고대근동의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틴, 아나톨리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2부 고대근동의 문화와 종교에서는 왕권의 성격, 예언과 제의, 지혜사상, 종교 등을 개괄하고 있다. 3부 고대근동의 문헌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틴, 아나톨리아의 문헌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 시기의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예언서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문헌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포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사야서 40~55장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민 유대인들이 자유민으로서 귀환하게 되고, 고레스에 의해 명령되고 다리우스 1세의 허가를 얻어 페르시아 제국의 후원 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다.